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서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안전운임제(화물운송업체 최저임금제)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낮은 운송료 구조는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를 낳았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도 온전히 화물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적용기간이 종료된다. 종료 1년 전에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작년 말까지 제도를 연장할지 결정해야 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은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엄정대응’ 운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된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부터 보장하라.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정부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화물노동자의 요구 수용하라!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박종우